

# 나는 나의 시인이라

이재규 시집



30th  
두란노

두란노서원의 승인하에 자유롭게 복사 및 무료 배포 가능합니다.

## 머리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큰 무리의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이 본 기적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라고 외쳤다. 그런데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께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돌덩어리로도 찬양하게 하신다. 실제 반도체 돌덩어리가 찬양을 한다. 그리고 오늘날 돌 같은 나도 찬양을 한다.

주님께서 ‘나의 시인’ 이 되라 하신 날밤 선잠에서 깨어 “나의 시인” 이란 말씀을 시의 모양으로 적었다. ‘나’ 는 ‘주님’ 을 뜻하므로 주님이 주격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격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주님의 시인” 이라고 불러야 한다.

‘나의 시인’ 은 주님의 시인이 되는 기준을 정하신 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가르치심이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다. 우리가 이런 시인되라는 부르심이다.

주님의 시인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필자는 주님의 시인이다. 다윗은 특히 주님의 시인이다. 설교자는 주님의 시인이고, 찬양자는 주님의 시인이다.

‘주님의 시’ 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그분의 가슴과 눈과 사랑으로 사물을 깨닫게 한다. 시의 형식이 주님의 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가르치신 분은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속의 성령님이다.

그리고 설교와 교육으로 가르친 하용조목사님과 함께 사역한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의 지혜와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분들의 분신이 되어 기록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은 없다.

바울은 전도 중에 텐트를 만들어 생업을 삼았다. 나의 생업은 과학적 의사결정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시인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인이 되려나 보다고 기대했다. 오래지 않아 이 일은 현실이 되었다. 한백문학에 예기치 못한 등단을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리 없지만 나는 갈정웅 추천 시인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시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소명이 주님의 시를 기록하는 것이라는 부담이 떨칠 수 없게 다가왔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의 조각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을 주님의 시의 기준으로 가다듬었다.

주님의 시인이 된 후, 요한이 밧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요한이 귀양간 그 밧모섬을 가 보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휴양지가 된 밧모섬보다는 내 상상속의 밧모섬이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기에.

주님의 음성은 장소에 매인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만나주신 곳이 나의 밧모섬이다. 내 기도대가 밧모섬이고, 무릎꿇은 교회의 마루바닥이 나의 밧모섬이고, 캠퍼스 산책로가 밧모섬이고, 양수리수양관 기도산책로가 밧모섬이다. 모두가 자기의 밧모섬을 갖게 되기 바란다.

주님의 시는 나의 시적 소양을 보이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나의 서정이 넘쳐서 기록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 분들이 주님의 시를 읽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 성경책을 더 읽게 되기를 소망한다. 더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

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 분들이 훗날 주님의 시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 소망이다.

이 꿈이 있기에 내가 어설픈 시인인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시를 세상에 내놓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굳이 할까? 두려운가 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새로운 주님의 시인을 기대한다.

2010년 8월 초판 출간

이재규 (시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온누리교회 장로)

추천사에 감사드리며 본 시집의 뒷부분에 담았습니다.

하용조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갈정웅 (대림대학 총장, 한맥문학 주간, 시인),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온누리교회 장로), 김영걸 (KAIST 경영대학 교수,  
기독교학생 지도교수), 김인강 (국제 편집장, 온누리교회 대학부 지도자)

2018년 7월 자유본 출간

두란노서원의 승인하에 자유롭게 복사 및 무료 배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고의 형태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드립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님의 추천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재규 (시인,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온누리교회 장로)

“지식과 그 너머” 비전과 리더십 2015 출간

Jae Kyu Lee ([www.business.kaist.ac.kr/faculty/jklee](http://www.business.kaist.ac.kr/faculty/jklee))

밝은 인터넷 국제회의 의장 ([www.brightinternet.org](http://www.brightinternet.org))

## 추천사

이재규 박사님의 시집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과학자의 시라는 점입니다. 과학은 논리적 추론에 충실한 학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과학의 전당인 카이스트에서 과학적 탐구에 익숙한 경영과학자가 논리를 뛰어넘는 시의 세계속으로 들어가서 시의 품성한 축복을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교회지도자의 시라는 점입니다. 모든 신앙인은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경험합니다. 교회지도자는 살아있는 신앙인이어야 하며 따라서 시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실한 지도자인 이재규 장로님은 자신을 영적 시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의 신앙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재규 박사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에 순종한 자신의 삶을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시인이라" 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은 다윗처럼 시인의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축복을 간절한 언어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이 시집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무료로 배포되는 e-book 을 통해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시집을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2018 년 6 월

이재훈 드림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나의 시인

내 하고픈 말  
전하는 입  
그 입이 나의 시인이다

내 가슴 느끼는  
그 가슴  
그 가슴이 나의 시인이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이 나의 시인이다

내 사랑 품은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시인이다

오직  
내 마음 적는 이  
그는 나의 시인이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누가복음 19 장 40 절)

## 목 차

- |                |    |
|----------------|----|
| 1. 하나님, 나의 아버지 | 9  |
| ◇ 나만 찾고 계시나요   |    |
| ◇ 길 잃은 아이      |    |
| ◇ 내가 너를 사랑함은   |    |
| ◇ 딸            |    |
| ◇ 애벌레          |    |
| ◇ 네 손잡고 걷고 싶다  |    |
| ◇ 나의 님         |    |
| ◇ 너, 나의 시인이여   |    |
| 2. 창조의 아름다움    | 21 |
| ◇ 하늘의 소리       |    |
| ◇ 왜 이리 눈물이 날까  |    |
| ◇ 만나와 수박       |    |
| ◇ 가뭄의 비        |    |
| ◇ 이것으로 부족하나    |    |
| ◇ 고양이의 지혜      |    |
| ◇ 구름에 몸을 싣고    |    |
| 3. 하나님의 손잡고    | 32 |
| ◇ 목욕           |    |
| ◇ 눈길 등산로       |    |
| ◇ 씨름 놀이        |    |
| ◇ 누렁이          |    |
| ◇ 없다 마라        |    |
| ◇ 꿈 이야기        |    |
| ◇ 예수님의 극화차     |    |
| ◇ 새끼 까치의 찬양    |    |

4. 끊임없는 소망 44
- ◇ 저울 나무
  - ◇ 다람쥐의 하루
  - ◇ 떨기나무
  - ◇ 무지개
  - ◇ 꿈속의 비상
  - ◇ 진달래
  - ◇ 수영
  - ◇ 먼저 구할 것은
5. 정금같이 나오리라 54
- ◇ 용서
  - ◇ 부족함이 준 선물
  - ◇ 감사하라
  - ◇ 약속을 믿고
  - ◇ 겸손
  - ◇ 가야 할 길
  - ◇ 대학의 배움
  - ◇ 박동
  - ◇ 멈추심
6. 사랑하는 분들에게 65
- ◇ 그리운 어머니
  - ◇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 ◇ 살아계신 김인수 장로님
  - ◇ 제자들을 생각하며
  - ◇ 네가 먹여라
7. 영원한 생명으로 77
- ◇ 새싹을 남기고
  - ◇ 모래성
  - ◇ 아담의 죽음
  - ◇ 정든 국화
  - ◇ 길 떠나며 남긴 말
  - ◇ 풀 한포기 키우리라



## 1. 하나님, 나의 아버지

- ◇ 나만 찾고 계시나요
- ◇ 길 잃은 아이
- ◇ 내가 너를 사랑함은
- ◇ 딸
- ◇ 애벌레
- ◇ 네 손잡고 걷고 싶다
- ◇ 나의 님
- ◇ 너, 나의 시인이여

## 나만 찾고 계시나요

나 이제 당신 이름 잊었는데  
아직 내 이름 기억하시나요

나 지쳐 당신 손 놓았는데  
아직 내 손 잡고 계시나요

나는 잠시 기다리다 가버렸건만  
아직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나의 사랑 이제 식었는데  
아직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나요

나는 내 갈 길만 찾는 데  
당신은 오늘도 나만 찾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누가복음 15장 20절)

## 길 잃은 아이

갈 길 잃은 절박한 아이  
아버지를 찾는다  
아무도 없는 눈길  
영하 이십도 기도산책로

길 잃은 아이  
아빠! 아빠~! 아~빠~! 부른다  
큰 소리로 부르고  
매아리도 함께 부른다

아버지가 안보여  
울면서 부른다  
눈물 펄펄 쏟으며  
울보되어 부른다

아버지의 손잡고자  
하늘 향해 두 손 뻗는다  
눈 위에 무릎 꿇고  
맨 손을 뻗는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라  
털모자를 벗는다  
거룩한 땅 삼으시라  
신발도 벗는다

이날 나는 눈 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포근하게 안아 주는  
아버지를 만났다

눈 녹았다 다시 언  
방패 모양 바지 무르팍  
그러나 돌아 오는 길은  
춡지 않았다

잃은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시편 119편  
176 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8장  
14-15 절)

##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내가 너를 사랑함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눈 닦았구나  
내 마음 닦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은  
배고프면 나를 찾기 때문이다  
내가 젖 주는 줄 알기 때문이다  
내게 젖 먹이는 것이 내 기쁨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나를 보고 방글 방글 웃기 때문이다  
내 웃는 얼굴에  
내 어찌 미소 짓지 않으리

내가 너를 사랑함은  
놀이에 빠져도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곁에 있는지 찾는 그 눈빛  
내 어찌 네 곁을 떠나리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나 찾아 멀리 기어오기 때문이다  
나 찾아온 너, 어찌 반겨 안지 않으리  
너를 안는 내 가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내 다리 잡고 서기 때문이다  
안아 달라 치켜 보는 네 모습  
어찌 굽혀 너를 안지 않으리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내 팔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도 나만 보면 네 몸을 날리니  
내 어찌 팔 벌려 너를 받지 않으리

내가 너를 사랑함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다  
아버지라 부르기 전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나를 아버지라 부를 때  
너는 온전히 내 아들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함은  
매일 자라 가기 때문이다  
나의 말동무조차 되는 구나  
내가 다른 길 갈 때에도  
내 품으로 돌아올지 알고 기다리지

내가 너를 사랑함은  
밥 먹기 전 내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빨리 먹고 싶어도 잠시 멈춘 그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먹이만 찾는 동물과 다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함은  
네게 귀한 것 내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네게 모든 것 준 나는 부족한 것 없으나  
네 사랑 담긴 마음 언제나 받고 싶지  
내 피 흘려 너를 영원히 살리고 싶도록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편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 딸

나의 딸 외동 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울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야곱에게 씨름조차 이기지 못하셨다  
나도 내 딸에게 결코 이기지 못한다

방문 쿡 닫고 들어간 딸  
문 열지 못하고 기다리는 가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한 사람 내 딸이 토라지면  
온 세상이 외롭다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외로우신 줄  
꿈에도 몰랐다

낙심하여 방황하는 딸 몰래  
준비하는 어미의 손길과 지친 새벽기도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  
먼저 계획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깨닫는다

딸이 태어나기 전  
딸인지조차 모르던 그때  
나는 이미 이 딸을 사랑하였다  
우리를 구원키로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알게 된다

딸과 이 땅에서 헤어지는 날  
반드시 오고야 말  
그 날의 고통과 그리움  
다시 만나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었다  
부활 위한 십자가를 알게 되었다

오늘은 내 딸이 태어난 날  
이 딸의 탄생을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을 기뻐하신다  
매일 거듭남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  
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 애벌레

애벌레된 우리는  
푸른 솔잎  
배불리 먹고 싶지만

당신은 솔잎 아닌  
꽃 속의 꿀 먹으라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 나비 되어  
훨훨 날라 하십니다

왜 당신이 대신  
죽으셨나요  
망가진 우리 대신  
차라리  
새 피조물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인가요  
영원한 생명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 장 53- 58 절)

## 네 손잡고 걷고 싶다

망원경으로 별을 보나  
우주 지으신 창조주는 못보는 장님  
작은 지식의 교만으로  
큰 지혜에 눈멀었구나

하나님 마음 품은 자  
그 마음이 지혜의 샘이다  
그 눈이 하나님을 본다

푸른 하늘 스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토끼모양 뭉게구름에  
심심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장난감을 본다

어여쁜 장미꽃, 넉넉한 호박넝쿨  
가을의 극화, 저울가지 눈송이  
너희는 어찌 그리 아름답게 생겼느냐

네가 좋아라고  
그리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놀고 싶으신 것이다  
이 꽃밭을 네 손 잡고  
걷고 싶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 나의 님

내 소시적에 배운 시  
침묵의 님이  
당신이 아니시기에  
내 님은 하나님이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꿈 같이 아름다운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를 모태에서 기르시고  
아버이 사랑 통해  
당신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안타까워  
대신 죽으신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  
당신이 나의 님입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하신 말씀 들려주시고  
요셉에게 보이신 꿈 보여 주시는  
텅빈 내 가슴  
기쁨으로 채우시는 성령님  
당신이 나의 님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님입니다  
님은 침묵이 아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 너, 나의 시인이여

네게 나의 시 없다면  
너는 꺾어진 가지

네게 나의 찬송 없다면  
너의 고요는  
죽은 호흡의 침묵

매마른 사막에  
어찌 푸른 잎이 나올까

나를 마시어라  
나를 품어라  
나에게 잠기라

그 날  
네 죽은 영혼에  
기적의 새싹 새로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 2. 창조의 아름다움

- ◇ 하늘의 소리
- ◇ 왜 이리 눈물이 날까
- ◇ 만나와 수박
- ◇ 가뭄의 비
- ◇ 이것으로 부족하나
- ◇ 고양이의 지혜
- ◇ 구름에 몸을 싣고

## 하늘의 소리

소리나는 하늘을 본다  
천둥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더 넓은 하늘 색깔의 소리

완전 파랑의 소리  
높은 음자리표, 썩!  
한점 물결없는 완전평면  
하늘 호수의 고요함  
땅 호수에 모두 담기엔  
너무 크구나

파랑에 흠어진  
새하얀 뭉게구름  
전원교향곡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속을 뒹굴고 싶은 포근함  
껴안고 싶은 다정스러움

그득한 줄구름이  
하늘을 강물처럼 흐른다  
장엄한 물결 소리가  
운명교향곡을 타고 흐른다  
귀로는 들리는 않는 베토벤의 선율이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더 없이 넓은 하늘 화면에 펼친  
저토록 웅장한 하늘의 잔치

그러나 고층건물 사이로  
조각난 하늘만 바라보는  
충혈된 나의 눈

내 눈에 담는 것 중  
제일 큰 것이 하늘임을  
땅만 보고 사느라 잊고 살았다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보지 못했다

오늘 아침 붉게 물든  
구름 사이 저 서광에  
내 무릎을 꿇는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은 나  
저 하늘만 보리라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시편 36 편 5 절)

## 왜 이리 눈물이 날까

푸른 하늘 넓게 펼침  
눈 시리게 보노라니  
오늘은 왜 이리 눈물이 날까

내 뺨으로 솔솔 부는  
초저녁 바람  
두등실 구름지고  
물 길러 간다

눈부신 주홍빛 석양  
고요한 북한산 실루엣  
그 어울림의 아름다움에  
왜 이리 눈물이 날까

내일도 저 하늘에  
밝은 빛 비쳐 올텐데  
오늘은 바람 속 주님 손길에  
눈물이 난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분별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10장 12 - 13절)



## 만나와 수박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사십년간  
만나 먹고 살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며  
기적이라 했다  
하루치씩 내려온  
하늘 양식을 매일 추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이 땅에 만나 보다 더 큰 기적  
수박을 주셨다  
땅에 심은 작은 씨앗 녀클이 되어  
버려진 인분과 수분으로  
볶고 달콤한 향기 가득히  
태초의 청정한 물덩이 된 수박  
초록결 통에 잘 쌓인 복 덩어리  
갈증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막에서 수박을 구해 보라  
사막에서 참외를 구해 보라  
사막에서 사과를 구해 보라  
사막에서 배를 구해 보라

사막에서 쌀을 구해보라  
사막에서 배추를 구해보라  
사막에서 풋고추를 구해보라  
사막에서 감자를 구해보라  
사막에서 고구마를 구해보라

매마른 땅에 비 뿌리신 손길을 보는가  
수박씨의 비밀을 심으신 손길을 보는가

수박밭 결 참외밭  
쌀 익는 논 가 배추밭 고추밭  
나무에 열린 기적 사과밭 배밭  
땅속의 기적 감자밭 고구마밭

광야에 비뿌려 옥토 만들고  
기적의 씨앗 땅에 심어  
양식과 과일 넉넉히 주었더니  
나의 손길은 잊고  
기적의 감격 없어졌구나

돈에서 나온 양식 먹느냐  
신용카드에서 나온 과일 먹느냐  
하나님은 잊고 육신이 먹느냐  
구역질이 난다  
이 민족을 토할까  
차라리 광야로 데리고 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이튿날에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1-12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중에서).

## 가뭄의 비

가뭄이 조금만 계속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내게 무심하다 말하는구나

그 동안 내려준 비 잊은  
네 기억 상실증  
내겐 너무 서운하구나

감사함 모르는 네 마음이  
갈라진 논보다 더 메마르구나

하늘 향해 간구하기 보다  
그 동안 내린 비  
감사하면 좋겠구나

내가 이미 내려 줄 비  
준비했기 때문이다  
네 발을 적심같이  
네 가슴도  
적셔 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고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사야 55장 9-11절)]

## 이것으로 부족하나

하나님 더 보여주시길  
애타게 간구하니  
이것으로 부족하나  
말씀하신다

딱딱한 겨울가지  
보드라운 연두 새싹  
저 가을 붉게 물든  
단풍 손 옷 같이  
이것으로 부족하나

어둠이긴 아침 해돋음  
허공이긴 푸른 창공  
그 저녁 애절한 황혼  
이것으로 부족하나

모래에서 생명 나고  
그 생명 자라 춤추고 노래함  
이것으로 부족하나

네 기도 듣고  
내 음성을 들려 준  
수많은 나날들  
그리고 오늘까지  
너를 지킨 나의 손길  
이것으로 부족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편 23편 1-3절)

## 고양이의 지혜

지혜로워진다는 과일을  
유혹에 빠져  
주인 몰래 먹은 고양이  
부끄러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지를 입었다  
치마도 들렀다

밥 먹을 땀 입 가리는 예의도 배웠다  
웃을 때 입 가리는 요염함도 배웠다

그러나 쥐를 보면 이빨을 드러낸다  
죽이는 것 즐기며 피를 먹는다  
다른 고양이에게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고 지혜로워지지 않았다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을 뿐이다  
완전히 속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릴 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는 말을 바꾼다  
선악과는 없었다 말한다  
원죄가 애초에 없다 말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없다 유혹한다  
아주 죽어가도록 다시 한번 유혹한다

아버지는 자녀의 죽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시다  
그래서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루셨다  
그것이 십자가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 구름에 몸을 싣고

숨가쁘게 벅찬 준비 가방에 담고  
남극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흩어진 구름과 망망대해  
어항 같은 하늘 바라 보노라니  
하나님 생각에 눈물이 난다

저 구름 넓게 펼쳐  
우리 목 적시시고  
누워 실 푸른 초목 길러주신다

저 하늘 구름 제 모양 바꾸며  
떠도는 것 보노라니  
작지 않은 삶의 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는구나  
저 유유한 구름 속에  
하나님 숨결 있어라

멀리 물이 보인다  
찬양하는 사람 적은 땅이 보인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곳  
그 곳에도 비 뿌려 먹이심은  
그 땅의 자녀를 기다리심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 절)

### 3.하나님의 손잡고

- ◇ 목욕
- ◇ 눈길 등산로
- ◇ 씨름 놀이
- ◇ 누렁이
- ◇ 없다 마라
- ◇ 꿈 이야기
- ◇ 예수님의 국화차
- ◇ 새끼 까치의 찬양



## 목 목

아버지는 우리를 씻기신다  
옷 벗기고 씻기신다

목욕통에 들어가라신다  
때를 불리라고  
그리고 우리를 씻기신다  
등 뒤의 때는  
아버지만 씻어 줄 수 있다

어떤 날은 아프게 씻기신다  
없던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아버지는 내 때가 더럽지 않은가 보다

목욕하고 나면 날아 갈 듯 상쾌하다  
물장구 놀이보다 더 즐겁다  
아버지와 함께해서 더 좋다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갈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 눈길 등산로

눈길 따라 산을 오른다  
눈에 묻혀 보이지 않는 길  
안내판 따라간다  
우리 인생은 눈길 등산로

첫째 안내판 - 등산로  
아무도 없는 깊은 산  
굴러 떨어져도 알 이 없는 절벽  
길이 곧 생명이다

둘째 안내판 - 길없음  
길 같으나 아닌 길  
그 길은 죽음이다  
길없음 안내판 아니면  
죽음으로 갔다

셋째 안내판 - 약수터  
습가쁜 길 멈추어  
한 모금 생수  
우리 길 다 가게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 씨름 놀이

야곱과 씨름놀이 하신 하나님  
저와도 씨름놀이 해 주셔요  
저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렵니다

밤새 놀아주지 못하시면  
잠시라도 놀아주셔요

저도 제 어린 딸과 씨름놀이 합니다  
한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안간힘 쓰는 딸 귀여워 못 이깁니다

딸이 넘어지는 듯하다가  
제가 넘어지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그 딸이 자라  
함께 놀아준 아버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기지 못한 추억이  
이 딸의 마음에 사랑이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분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분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2-30절)

## 누렁이

아직 이른 새벽  
누렁이가 달려간다  
너무나 반갑게 달려간다  
펼쩍 펼쩍 뛰며 좋아한다  
나는 “그래, 그래” 하며 어루만진다  
밥 주는 애비된 것 너무 기쁘다

누렁이는 사냥개도 아니다  
도둑 잡은 영웅도 아니다  
그냥 애비보면  
좋다고 좋다고 꼬리 흔들고  
좋다고 좋다고 펼쩍 펼쩍 뛴다  
그래서 나는 누렁이가 제일 좋다  
누렁이가 아들처럼 사랑스럽다

하나님 오시면  
쫄쫄 뛰며 반기자  
멀리서 음성만 들려도 쏘살같이 달려가자  
“그래, 그래” 하시며  
우리 머리 쓰다듬으실 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 2-4절)

## 없다 마라

네 잠들었다  
엄마가 없다 마라  
자장가로 너 재우고  
차넌 이불 덮는 엄마  
네 새근새근 호흡  
사랑으로 보고 계시니

깜깜한 밤이라  
태양이 없다 마라  
햇살로 사과 빛은  
기적의 초록잎은 쉬고  
산새도 등지에서 잠자나  
거대한 지구 돌려  
아침 준비하는 손길이 있으니

네 호흡이 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 마라  
네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  
너 영원히 사랑하시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리로다.  
(시편 121 편 1-3 절)

## 꿈 이야기

간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소  
요셉같이 살쩍 소를 보여 주신 것도 아니요  
다니엘같이 신상을 보여 주신 것도 아니었소  
나에게 알맞은 꿈  
항문을 꼭 닫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여 주신 것이었소  
스코루지 영감에게 재물 욕심이 헛됨을 보여 주신  
성탄 전야의 꿈과도 같은 것이었소

항문을 닫지 못하는 나는  
대로변에서 종이를 깔고 알굼둥이를 내 놓은 채  
변을 닦아내어야 했고  
버스가 다가오면 급히 바지를 치키고  
뒤를 닦지도 못한 채  
종이가 옷에 낀 채  
똥 물을 툇툇 떨어 뜨리며  
버스에 올라탔소

복잡한 버스의 옆자리에 선 사람의 옷에  
똥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묻기도 해서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손수건으로 그들의 옷을  
급신 급신 닦았지요  
그 당황스러운 저의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이 느껴지오

어느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내 이야기 인줄 모르고  
길에서 굼둥이 내 놓은 동문이 있다는데  
개망신이라고 하더이다

이 꿈 이야기는 조금도  
수사적으로 보탠 것도 빼 것도 없어요  
“개 꿈이구나.  
똥 꿈이 돈 벌 꿈이야!”  
라고 말하실 지 모르지만  
이 꿈은 나를 구원하신 성령의 꿈이었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소

어떻게 성령의 꿈인지 아느냐고?  
왜 개꿈을 미화시키느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압니다  
나에게 이 꿈을 통한 말씀이  
꼭 필요했음을  
꿈에서 깨어난 나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오  
자다 말고 감사 찬송을 드리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육신의 건강은 기적입니다  
항문이 닫힌 것도 기적입니다  
항문의 열고 닫힘이 이렇게 감사할진 데  
우리의 신체와 영혼건강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삶에서 바라는 것도 많지만  
단 한가지만 허락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삶이 달라짐을  
체험한 소중한 꿈이었어요

요즘 주어진 목표에 매달려  
노심 초사 했지요  
나의 생존과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이 짧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면  
모두 헛된 삶을 깨우쳐 주었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렵니다  
보혈에 의지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렵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12장 9절)



## 예수님의 국화차

예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스승의 날  
한 일없이 국화차를 선물 받았다

스승답지 못한 내 모습이 송구스러워  
진정한 멘토는 예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화차는  
예수님께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국화차를 드실까?

나에게는 기도대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한 장소이다  
기도대에 국화차 올려 드렸다  
“예수님, 국화차 가져 왔어요.”  
“예수님, 현금만 받으세요?”

예수님은 국화차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국화차를 받으셨다  
내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그 차는 예수님의 국화차가 되었다

예수님의 국화차를 혼자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떡을 떼며 나누어 마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셨다  
우리의 삶을 국화차에 담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 새끼 까치의 찬양

홍콩의 작은 다락방 교회  
내 영혼의 예배처  
이곳에는  
무릎 꿇은 목사님의 기도와  
모이 찾는 새끼 까치 같은  
찬양의 입 별림이 있다

증극지도 크게 건  
기역자 난 작은 교회  
이곳에만 오면 성령님은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신다

나도 찬양을 드리고 싶었다  
한 목소리라도 더 보태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상한 성대는  
큰 소리 찬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못다한 찬양이 있다  
잊을 수 없는 그 찬양  
“.....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

찬양하는 입  
새끼 까치의 입 별림이다  
떡이 넣어 주고 싶은  
어여쁜 입 별림이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34편 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 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분이 누구냐? (욥기 38장 41절)

## 4. 끊임없는 소망

- ◇ 저울 나무
- ◇ 다람쥐의 하루
- ◇ 떨기나무
- ◇ 무지개
- ◇ 꿈속의 비상
- ◇ 진달래
- ◇ 수영
- ◇ 먼저 구할 것은

## 저울나무

앙상한 저울나무  
푸른 하늘 향해 올려 본다

여름의 풍성한 잎도  
화사한 가을의 단풍도 없이  
찬바람 찬이슬 맞으며  
그냥 죽은 듯 서있다

쓸쓸함은 바람소리이어라  
서러움은 차가움이어라  
외로움은 홀로 서 있음이어라

그렇게 많은 나무중  
누군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건만  
아무도  
저울나무를 돕지 못한다

그러나  
저울나무는 뿌리를 잃지 않았다  
깊이 내린 뿌리  
모진 바람을 견디었고  
잎 없음이 추위 전담의 비밀이었다  
추억의 낙엽 떨어뜨림이  
생명의 시작이었다

이제  
따스한 햇살이 온다  
따사로움이 저울나무 가지를 어루만진다

기쁨이 터져 나옴이 연두빛 새싹이다  
딱딱한 가지 뚫고 나온  
보드라운 새싹이다

새싹은 낙엽의 안타까움으로 시작되었다  
새싹은 저울 있기에 봄을 깨닫는다  
새싹은 뿌리 있기에 움튼다

이제 온 세상이 푸르러 질 것이다  
황홀한 기적의 손길로 꽃필 것이다  
그러기에  
저울나무는 소망의 기둥이다  
그러기에  
저울나무는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균균히  
기다림 속에서

내 손으로  
저울나무를 어루만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의 시편 1편  
3절)

## 다람쥐의 하루

다람쥐는 노는 듯 일한다  
하루 종일 도토리 찾아 헤맨다  
도토리 찾아 뛰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다람쥐는 고목 등지를  
갈잎 포근하게 깎는다  
그러기에 갈잎 물고 나무를 오른다  
나무 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지루한 다람쥐의 장난  
다른 녀석을 쫓고 쫓기며  
푸른 숲과 함께 논다  
함께 노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먹이 찾는 발걸음  
쌀인 먹이 보다 아름답다  
집 짓는 손동작  
큰 등지보다 아름답다  
다정한 장난  
응변보다 아름답다  
다람쥐의 하루  
그 하루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3-34절)

## 떨기 나무

모세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게 하셨다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우면 신발을 먼저 벗는다  
그 자리 거룩한 땅 삼아 주시라고 기도 드린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시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서 찾아온  
우리같이 덜 된 사람도 똑같이 반기신다

나는 하나님이 그리우면 신발을 벗는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천국에는 내 목소리가 크게 방송된다  
“이 녀석, 또 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을 잡아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8절)



## 무지개

기지개 키는 늦은 오후  
지친 눈을 문득  
벽으로 향한다

벽에 작은 무지개가 떴다  
창가 문진이  
일곱색 무지개를 벽에 걸었다

소망의 무지개다  
노아 홍수후의 그 무지개를  
내 앞에도 보내셨구나  
내 인생의 무지개에  
새 소망을 갖는다

언약의 무지개다  
일곱 색 품은 빛을  
백색으로만 알고  
근시안으로 보낸  
창백한 나날들  
색동 무지개로  
언약이 새롭게 살아난다

사랑의 무지개다  
물방울이 나를 적실 것이다  
은혜의 무지개에  
메마른 가슴이 촉촉해진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 장 12-13 절)

## 꿈속의 비상

나는 꿈 속을 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래서 깨어서도 즐겁다

꿈 속에서  
새처럼 날갯짓을 하고  
두 다리 개구리처럼 내치며  
바람에 몸을 의지한다  
그러면 새처럼 날 수 있다

늘 높이 날지는 못한다  
사람들 손에 잡힐 만큼 낮은 비상  
사람들은 그까짓 것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난다  
온 산을 내려다 보고  
지구를 한 눈에 바라 본다

꿈의 몸짓을 해 보나  
꿈처럼 되지 않는 현실  
그러나 그 몸 짓은 너무나 새롭다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몸짓  
꿈이 가르친 몸짓이다

꿈 속을 날 수 있기에  
오늘은 내일을 꿈꾼다  
꿈은 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 절)

## 진달래

한송이 진달래 꽃이고 싶다  
내 벗 입가에 미소짓게 하는  
한송이 진달래 꽃이고 싶다

한줄기 진달래 가지이고 싶다  
저울 서리 이기고  
있없어도 꽃망을 내는  
한줄기 진달래 가지이고 싶다

긴뿌리 진달래 뿌리이고 싶다  
땅속에 묻히어  
남 몰래 남 몰래  
가지에게 물 보내는  
땅속 깊은 진달래 뿌리이고 싶다

떨어진 진달래 낙화이고 싶다  
아름다운 분홍이 흙이 되어  
새 잎의 거름되는  
진달래 떨어진 꽃이고 싶다

찬양하는 진달래 꽃이고 싶다  
간밤 진달래꽃 피우신  
하나님 손길 아는  
찬양하는 진달래 꽃이고 싶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 편 1, 2, 6 절)

## 수영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어머니 태속 같은  
부유하는 평안함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내가 숨쉬고 있음을  
잠시도 잊지 못하므로

나는 수영을 좋아한다.  
내 호흡 있게 하신 하나님  
아무의 방해 없이  
생각할 수 있기에

쁘르륵  
오늘도 물 속에서  
공기 방울 내쉬며  
하나님을 느낀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찌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 편 1 절, 6 절)

## 먼저 구할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  
하나님 뜻 먼저 생각하라  
내 소망 아뢰기 전  
하나님 말씀 먼저 귀 기울이라

걱정 탄식하기 전  
하나님 먼저 찬양하라  
서운함 불평하기 전  
하나님 눈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라

내 간구한 소원 확신하기 전  
하나님의 선하심 먼저 확신하라  
나의 유익 구하기 전  
섬겨야 할 소명 먼저 생각하라

아침 눈떠 오늘 소식 보기 전  
영원한 약속 말씀 먼저 읽으라  
오늘 어떤 어려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 먼저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33절)

## 5. 정금같이 나오리라

- ◇ 용서
- ◇ 부족함이 준 선물
- ◇ 감사하라
- ◇ 약속을 믿고
- ◇ 겸손
- ◇ 가야 할 길
- ◇ 대학의 배움
- ◇ 박동
- ◇ 멈추심

##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을 자유  
주시지 않으셨다

용서함 없이  
참 평화 없기에

용서받지 못할 그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에

그들의 죄 값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치루셨기에

내가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할 자이기에

용서받지 못할 그들에게  
내 손 통해 사랑 보이시길  
이미 작정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1-13 절; 주 기도문 중에서)

## 부족함이 준 선물

삶은 부족함의 연속  
소유는 언제나 욕심보다 작다  
돈 되면 시간 없고  
시간 되면 건강 없다

끝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불행하다  
부족함이 없는 천국  
그 행복은 어디 있는가

지혜와 권세 모두 가졌던 솔로몬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 한다  
완벽한 욕망의 다른 표현일까  
다른 더 소중한 진리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뜻밖에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네 것이라 하신다  
부족함에 천국 비밀  
담겨 있음이 놀랍다

다 가진 자  
다 가졌기에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다

다 가진 자  
다 가졌기에 감사할 게 없다  
감사함 잃은 마음  
황폐한 사막이다



부족함 더 채워질 때  
감사한 마음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  
부족함이 준 선물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5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 감사하라

계획조차 세울 수도 없이 낙망될 때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이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주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이다

자신의 무지함에 절망할 때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 지혜의 광대하심에  
우리 지혜 담글 때이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주님께 감사하라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평안이 될 때이다

지나치게 바쁠 때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고요한 마음으로  
포기함을 배울 때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18절)

##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 약속의 땅과  
너무 달라 보여도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내 믿음의 크기 보여드릴  
축복의 길이니까

오르막 길 숲에 가려  
봉우리 안보여도  
약속을 믿고  
한 계단 한 계단  
언덕을 올라간다  
내 믿음의 높이 보여드릴  
축복의 언덕이니까

더 기다릴 수 없이  
조바심 나도  
약속을 믿고  
하루 하루  
덜익은 과일을 바라본다  
내 믿음의 길이 보여드릴  
축복의 시간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가노라.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 3장 13-14 절)

## 점 손

점손한 자 되고 싶었으나  
칭찬받은 후 점손의 모양만 남았다

점손함의 아름다움으로 기억되고 싶었으나  
떨시당한 분노 속에  
점손의 교훈은 간신히 기억만 되었다

점손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강요된 점손은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나 혼자 노력한 점손  
끝없는 미완성 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점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 점손을 배운다  
거룩한 점손, 감사에서 나오고  
아름다운 점손, 사랑에서 나오고  
기쁨의 점손, 기도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비굴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점손의 기쁨이 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점손한 자에게 은혜를  
배부시나니 (솔로몬의 잠언 3장 34절)

## 가야 할 길

네 길을 잃으려면  
사람들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현실적이라 하라

믿음을 독단이라고 하라  
소망을 고집이라고 하라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작은 시련에도 좌절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신증을 가장하여 망설여라  
그러면 너는  
갈 길을 잃을 것이다

네가 참 길을 찾거든  
하나님을 따라가라  
믿음으로 따라가라  
소망으로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입 벌려 응답하라  
시련의 파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 대학의 배움

돈 버는 법 배우러 왔으나  
사람 되는 법 배우고 가거라

다스리는 법 배우러 왔으나  
섬기는 법 배우고 가거라

지식 으뜸되기 위해 왔으나  
겸손의 지혜 배우고 가거라

내 장래 희망 얻기 위해 왔으나  
그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라

그대로 인하여 온 세상이  
밝고 아름다워지게 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 9장 10절, 1장 7절)

## 박 동

내 심장은  
생명이 첫 박동에서  
마지막 박동까지 입을  
알려주는 자명종이다

저린 가슴은 공황을 담는다  
강심장에는 담지 못할 공황이다

연약한 맥박은  
누구의 손길을 필요케 한다  
누구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함 입을 깨닫게 한다

그러기에 심장병은  
욕심의 손놀림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다  
그리고  
생명의 창조주께 감사케 한다

심장병은  
심장 가진 이에게 주어진  
축복의 나침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6 편 7 절)

## 멈추심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무조건 달리는 고장난 습관  
그 습관 멈추시려  
내 다리 기운 빼시었다

내 생각으로 이룬 일 아님을  
고백하도록  
내 머리 아프게 하시었다

혼자 설수 없음 알게 하시려  
증력 조차 이기지 못하고  
눕게 하시었다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내 바램만 간구할 때  
가는 길 막아  
멈추게 하시었다

은혜와 감사를 깨달을 때까지  
멈추게 하신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회복되는 그 날까지

나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세 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 12장 8절)



## 6. 사랑하는 분들에게

- ◇ 그리운 어머니
- ◇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 ◇ 살아계신 김인수 장로님
- ◇ 제자들을 생각하며
- ◇ 네가 먹여라

## 그리운 어머니

주후 일천 구백 구년 지난  
동짓달 열 엿새 되던 날  
대한제국의 여식으로 첫울음을 터뜨리며  
내 어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다

외할머니는 무명 기저귀를  
찬물에 빨고 장작불로 삶아  
저을 찬바람에 동태처럼 말려  
숯불 다림질로 이 여식을 키우셨다

소녀 시절 장난감은 고무줄과 공깃돌  
고무줄 놀이는 어머니의 노래방  
어머니의 십팔번은 고상한 명곡 “사우”  
그 때 잘 못 배운 가사는 평생 반복되었다

자손 귀한 집에 시집와 구 남매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 자궁은 복 주머니  
사 남매를 잃은 어머니 가슴은  
앞선 자녀들의 무덤

아내된 어머니의 일생은 아버지 따르기  
호인이신 아버지는 욕심없는 방랑자  
여유있는 젊음 후에도  
가족 위한 집 한채 남기지 않았으니  
노후 고생은 예정된 것

6.25 피란 길에  
배 고파 작게 태어난 나의 출생  
마흔 두살에 본 막내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의 가족 율타리됨 정년퇴직으로 끝났다  
이렇게 강요된 절약 이십여년 계속되었다  
김장 담가주고 김치 한 포기 얻어오기  
들기름 짜주고 기름 한 병 얻어오기  
보리쌀 구호 받기  
막내는 번데기를 먹고 자랐다

아버지는 육십 오세를 일기로  
싸늘한 골방에서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  
가시는 길도 모르신 채  
혼자된 어머니의 날들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스물 여섯 해나 계속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미신에 지극 정성인 어머니의 구원은  
헛된 지혜를 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연탄가스 중독이 그 구원의 서곡이었다  
철없는 아들 딸과 며느리들이  
희미한 기억 속의 어머니 사랑과  
고단한 육신의 갈등 속에서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귀에  
복음을 전할 때까지  
어머니의 삶을 거두실 수 없었다

그렇게 스물 여섯 해 병고 속에  
부모공경의 계명을 가르치신 후  
일천 구백 구십 구년 이월 육일 아침  
마침내 하나님의 딸이 된 어머니는  
마지막 호흡을 고요히 거두셨다  
우리의 불효도 탓하지 않으신 채  
천국의 평안한 표정을 흔적으로 남긴 채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신 밭이 되고 거름이 되었으나  
자신은 영문도 모르신 채  
이 땅을 떠나시었다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기르신 어머니  
연단 시키신 어머니  
고된 삶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당신을  
이 아들의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운 어머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십계명 중에서)

+ 억울한 옥고를 치루는 한동대 김영길 총장께 드린 편지 (2001년)

## 부러운 김영길 선배님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계신 김영길 선배님.  
당신이 감옥에서 고초를 받고 계신 것조차 부러워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살칼의 아픔은  
영혼의 기쁨으로 이길 것으로 믿기에  
당신의 영혼을 부러워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온 소싯적에  
재료공학과에 김영길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할  
세계적 학자라고들 함디다  
학자로서 부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없이 얻을 수 없는 연구결과가  
은혜로 주어졌다기에  
더욱 더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창조과학회를 섬기는 충성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에서 흰구름에서  
봄날 진달래 꽃잎에서  
가을 노란 은행잎에서  
그리고 나의 호흡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고 계셨으나  
그 증거에 앞장선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당신이 장로로 섬기시는 그 교회의  
새 신자된 저는 당신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낙인임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외치는 그 모습에서  
나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나침반이셨습니다

삭막한 과학의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던 당신께서  
느닷없이 한동대학교로 가야만 한다던 모습  
그 길은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복받은 학자요 연구자이지  
행정가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아끼던 발자국을 돌아보지 않고  
아브라함같이 떠나시던  
그 모습과 그 기도  
그 순종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 계셔서 부럽습니다

노랗 돈 때문에 쩌들리는 대학을 맡아서도  
늘 희죽 희죽 웃으시니  
보는 제가 오히려 걱정됨디다만  
그런데도 한동대는 우뚝서는 것을 보니  
김영길 총장님의 역할은  
스스로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십자가 였습니다  
꽃대된 그 모습이 부럽습니다

집요한 모함과  
집요한 음모로  
당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 무리들이  
드디어 당신을 감옥에 보내고 기뻐하니  
아, 가소롭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신 대가로 치르는 고초가  
당신을 얼마나 값지게 할지  
당신의 죄로 말미암지 않은 고초이기에  
그 억울함을 부러워합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영원히 아름답게 빛을 것이므로

스승이 없다는 스승의 날이면  
늘 부끄러운 제 모습  
참 스승을 찾은  
수많은 당신의 제자  
당신이 스승으로 부럽습니다  
연구에 매여  
삶을 주어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더 부끄러워지며  
학생의 사랑받는 스승 총장된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시작된 가정  
그 가족과 함께 밥 먹고 물마심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김영애 권사님  
그 분의 피눈물나는 기도가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계속되기에  
그 사랑받는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고초의 나날을  
그냥 지켜 보시는 듯하신 하나님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이 시련을 매듭지으실 하나님  
한 순간도 멈추심없이  
당신의 고초가 안타까워  
내 가슴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사랑을 저는 부러워 합니다

혹시 이 고초를 못 이길까봐  
늘 위로코자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당신 곁에 계시기에  
그것을 부러워 합니다  
고초 없는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 깊은 만남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위로 받기에 충분하시지만  
그러나  
저의 작은 사랑과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아는 인간으로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심을 더욱 가지실 수 있도록...

당신을 부러워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부러워 합니다  
당신의 고초도 부러워 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사랑을 부러워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 갔습니다. 왕은 사자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부르짖으며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 6장 19-20절)



## 살아계신 김인수 장로님

당신이 떠난 지 일년이 지나  
당신을 추모하나  
정작 당신은  
하나님 약속의 은혜로  
아주 떠난 분이 아닌  
긴 기다림의 그리움 후에  
다시 만날 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던 당신께  
새로 묻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살아서 전하신 천국을  
오늘 직접 보시니 어떠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당신의 외침에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당신의 선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홀연히 가신 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어야 하던가요  
뒤돌아 보니 무슨 발자국이 남았던가요  
당신의 삶은 이 물음의 탐구였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꼭 안고  
불을 부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 제자들을 생각하며

창가에 앉아  
조각에 두고 온 제자들을 생각한다  
내 삶의 등지요  
내 생의 반려자이며  
발 씻기며 섬겨야 할 그들  
내 떡이 작고 딱딱하여  
허기진 그들의 모습이  
내 가슴을 녹인다

창가에 앉아  
예수님을 생각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분을

작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시늉을 해 보지만  
언제나 종착역은  
미화된 욕심을 넘지 못한다

내 사랑 너무 작아  
예수님의 사랑 직접 받도록  
기도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께서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4-5절)

## 네가 먹여라

온 세상 먹이시고  
모든 신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끝없는 수렁 같은 필요의 손길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나  
감당 못할 굴레에 오히려 좌절한다  
돕기는 커녕  
내 한 몸 보살피기도 절박한  
내 사정을 호소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부담을 어찌 감당 하실꼬  
그래서 하나님이다  
부담보다 더 큰 끝없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이 소용돌이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위선자라 탓하시기 보다  
우리 작은 손길도 기억하신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 닮게 하신다  
하나님 사랑 품었기에  
부담 안고 됴근 인생  
완전한 인생이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 7. 영원한 생명으로

- ◇ 새싹을 남기고
- ◇ 모래성
- ◇ 아담의 죽음
- ◇ 정든 국화
- ◇ 길 떠나며 남긴 말
- ◇ 풀 한포기 키우리라

## 새싹을 남기고

이른 봄  
내 정든 마을 떠난다  
봄의 꽃 망울을 보았기에  
늦 감기든 코 훌쩍이며  
이 마을을 떠나간다

보송한 잎내는 봄에 이 마을을 찾아왔다  
산천초목은 으레 푸른 줄 알았다  
팔월의 푸르름에 가지조차 안보였다  
가지는 필요없는 줄 알았다

여름내 일군 밭고랑은 나의 주름살  
닭 똥이 사과를 달게 하는 비밀을 끝내 알지 못하지만  
사과나무 그루에 냄새나는 닭 똥을 무던히 뿌렸다

가을 추수는 내 땀을 잊게 하는 진통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보다  
오히려 저울맞이 이었다

저울은 몹씨도 추웠다  
다람쥐는 저울이 되어도 걱정없다는 동요가  
아랫목에서 지은 바램인 것을  
뼈를 파고 드는 시림이 말해준다  
춥고 눈덮힌 긴 저울이었다

한해살이 풀같이  
한해 살다 떠나간다  
이제 겨울이 지났기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 뼨 남긴 땅 없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훗날 돌아오리라  
옛 푸름을 보러 오리라  
잎 떨어진 감나무에  
까치 밥 달려 있고  
내가 심은 봉숭아 꽃물로  
소녀의 손톱 물들인 이 마을  
주님 손잡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아내 있어  
이 마을이 아름다웠소  
된장 듬뿍 상치 씹  
내 입에 넣어주오

그대와 같이 오고 싶소  
뒷동산 산책로 다시 같이 걷고 싶소  
연못 오리 밥도 같이 주고 싶소

오늘은 내 고향에 돌아가오  
내 아버지 집으로  
새싹을 보았기에 이제 가야만 하오  
멀리 교회당 종소리가 들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1-2절)

## 모래성

애써 쌓은 모래성  
바람에 헛날리고  
파도에 허물어진다  
모래로 쌓았기에...  
내겐 모래밖에 없다 증명거린다

모래성 해변으로 난 나의 발자국  
파도가 씻어간다  
철썩, 쇄아  
철썩, 쇄아  
마지막 발자국도 씻겨 간다

아쉬움에 그 자리에 다시 서 보지만  
오히려 내 발 밑 모래까지 씻어간다  
멈추지 않는 무심한 파도

해는 저물어 간다  
시들 꽃 같은 황혼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모래성을 또 쌓을까  
되돌아가 깊은 발자국을 다시 남겨 볼까  
누가 봐 줄까

파도는 변함없다  
철썩, 쇄아  
철썩, 쇄아

그 날 아버지의 초대 없었다면  
나는 그 해변에서 소리없이 울 뻔 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 아담의 죽음

원죄는 아담에게서 왔다  
한심한 조상이다  
내가 에덴에 있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걸

원죄만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착할텐데  
조상 탓한 내가  
매일 선악과를 따먹는다

건강 위해 보약 먹으나  
영원한 생명을 잇고  
평생 먹을 양식 쌓으나  
양식 주신 창조주를 잇는다  
조그만 성취에도  
교만의 기쁨 가득하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완전히 교만하고 싶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완전히 지배하고 싶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구원의 시작이다  
나의 죽음도 구원의 시작이다

새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고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끝없는 재앙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 (요한복음 6장 40절)]

## 정든 국화

저우내 잎 떨어진 국화꽃 자리  
새 봄에 세 다발 싹을 피웠다

여름내 잘 자란 키  
태풍 맞아 쓰러졌다

버림목 기댄 가을  
국화꽃 세 다발 꽃피웠다  
노란색 들 보라색 하나

아침에 집 나갈 때  
잘 잤니 어루만지면  
꽃들이 화음 맞춰 노래를 한다  
노란빛 메조소프라노  
보라빛 바리톤

가을비 흠뻑 젖어  
머리 무게 못 이겨  
또 쓰러졌다  
빗물 털고 다시 세웠다

저울 찬 공기에 꽃잎이 시든다  
반은 흙으로 변한 네 꽃잎  
내 백발 닮았다

이웃 꽃집에 참 예쁜 국화꽃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꽃을 사지 못한다  
네가 서운할 까봐

네 꽃잎 시든 줄만 알았는데  
그 아래 씨앗 여물었구나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이사야 54 장 10 절)

## 길 떠나며 남긴 말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긴다  
유언보다 더 진실한 말은 없으므로  
유언과 상처된 말은 다 일시적이거나 거짓이다  
길 떠나며 간절히 남기고 싶은 말을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헛되고 헛되게 살뿐이며  
박사가 되어도 부자가 되어도  
자기 배가 고프면 점손을 가장하고  
배부르면 교만해져 뒤로 넘어져  
끝내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온 삶으로 힘쓰라  
그것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므로

네 눈에 안보인다  
안계신다 하지 말며  
네 귀에 안들린다  
안계신다 하지 말라

저 태양의 찬란함과 신록의 푸르름  
네 눈은 보지 못하느냐  
심산의 상쾌한 초저울 김서린 공기  
네 코는 마시지 못하느냐  
저 새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네 귀는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은  
아버지의 얼굴 모르는 고아 같이  
끝없이 갈망하며  
허공을 잡고 흐느낀다

돌아가라  
아버지의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그리고 결코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20절)

## 플 한포기 키우리라

내 육신을 마감하는 날  
흙으로 돌아간 내가  
플 한포기 키우리라  
초록 잎 푸르게 하리라

내 몸의 수분은  
하늘의 한 점 구름이 되어  
더운 날 시원한 응달이 되었다가  
가뭄 날 한 방울 눈물이 되리라

이 곳에 네 땅을 갖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켰더니  
천국에 예비하신  
내 집이 보인다

그 날이 오면  
나의 작은 흔적으로도  
다시 살리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함께 거듭 나리라

그 후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 <추천의 글 >

### 하나님은 누구를 “나의 시인” 이라고 부르시나?

하용조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규 박사님은 온누리교회의 장로요, KAIST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인입니다.

요한이 밧모섬에 갇 심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눈물로 쓴 시요, 가슴으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집이 아니라 시인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이 시 속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왜 “나의 시인” 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머릿말을 읽어보니 그것은 “주님의 시인”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은 뜻입니다.

이 시를 읽는 이 마다 “주님의 시인” 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영혼이 맑아지는 시

갈정웅(제갈정웅) (대림대학 총장, 한맥문학 주간, 시인)

이재규 시인의 시를 읽으면 내가 어린애처럼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시인이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매일매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장로로서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재규 시인이 처음 한맥문학에 등단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등단 이후 써온 시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나의 시인>을 비롯한 52 편의 시에 한편 한편 시의 내용과 연관성이 깊은 성경 말씀을 곁들인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출판된 시집은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듯, 땅 위의 시 한편 읽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한 모금 마시게 편집한 것은 독자를 위한 친절한 배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칭송한들 성경 한 줄의 가치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인간이 쓴 글이 우리의 가슴에 더 진한 물줄기를 만들 때가 있지요.

가령 이재규 시인의 <감사하라>를 읽어봅시다.

계획조차 세울 수도 없이 낙망될 때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이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주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이다.

자신의 무지함에 절망할 때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 지혜의 광대하심에  
우리 지혜 담글 때이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주님께 감사하라.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평안이 될 때이다.

지나치게 바쁠 때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의 고요한 마음으로  
포기함을 배울 때이다. <감사하라> 전문

우리는 위의 시를 읽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더 쉽게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 시와 같은 문학작품들이 삶에 유용한 것이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규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나의 시인>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아울러 풍요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추천의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재규 시인이 계속 하나님을 칭송하는 시를 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담긴 시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한국창조과학회 명예회장)

이재규 박사님은 머리가 차가운 탁월한 학자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따뜻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좌뇌와 우뇌, 어느 한쪽으로도 더 기울지 않도록 귀한 두 달란트를 모두 주신 것을 저는 부러워합니다. 그는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신앙인이십니다. 제가 KAIST 를 떠나 한동대에 와서 고난과 질곡의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위로와 격려를 한 편의 詩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받은 그 때의 격려를 힘입어 지금까지 저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제게 더욱 잊혀질 수 없는 각별한 후배 교수요, 신앙의 동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순수한 詩想은 우리를 한없이 감동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는 그만 시인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그의 詩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 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의 어원인 포이에마(poiema)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엡 2:10)”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대로 쓰임 받고 그가 주신 靈感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시인입니다.

## 시골소년 같은 마음

김영걸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 기독교 학생 지도교수)

시집 “나의 시인” 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재규장로님의 신앙고백입니다. 글을 통해 한 인간의 내면을 읽을 수 있듯이, “나의 시인” 은 경영학자로 학문의 일가를 이룬 이재규교수님의 “시골소년” 과 같은 맑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왜구의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도 “난중일기” 를 썼던 이순신장군처럼 교육과 연구와 선교의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한 이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축복의 나침반” 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주님의 시를 통한 부르심

김인강 (국제청 발간지 국제 편집장, 온누리교회 대학부 지도자)

6년 전,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 이삭대학부의 담당 멘토님이셨던 이재규 장로님을 통해 주님을 향한 겸손이 참된 능력임을 저희 대학생들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 멘토님의 간증으로만 들었던 주님의 시인으로서의 부르심을 시집 <나의 시인>을 통해서 오늘 다시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시인>은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일 예배드리고, 섬겨왔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눈 멀었고 믿음 없이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여준 주님의 시였습니다. 저는 허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꿈과 이상은 크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업적에는 늘 민감했지만, 그들이 치른 희생과 대가에 대해선 너무나도 무감각했었습니다.

<나의 시인>에서 하나님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이 멘토님의 고백을 통해, 27년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해왔던 저의 허영이 깨달아져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20대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진지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포기과 희생의 길을 따르기에는 저는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간사한 모습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한 부르심을 회복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